

한-케냐 인프라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9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출처:trading economics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USD)	129	129	2025.9월
인플레이션(%)	4.5	4.1	2025.8월
CPI(points)	146	146	2025.8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.12월

○ 케냐 국가부채, KES 12조 초과...가시적 성과 부족에 추가 차입 중단 요구 확산¹⁾

- 국가부채가 KES 12조를 초과하였으며, 증가하는 차입을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개발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.
- 예산감시관 마가렛 냐캉고(Margaret Nyakang'o)와 경제학자들은 부채 증가와 연계된 실질적 인프라 구축 또는 사회적 투자 실적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.
- 보고서에 따르면, 국내 차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금리 이자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, 필수 공공 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.
- 국회의원(MPs)을 포함한 반대 세력은 정부에 추가적인 차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, 부채 누적이 지속될 경우 케냐의 경제가 불안정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함.

○ 케냐 재무부, 국내 차입 전환 및 9,010억 KES 목표 설정²⁾

1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8867/sh12-trillion-public-debt-horror-with-little-to-show#google_vignette

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treasury-to-borrow-more-from-domestic-market-in-u-turn-5186768>

- 케냐 재무부(Treasury)는 2026년 6월 종료되는 회계연도 동안 국내 시장으로부터 KES 9,010억을 조달할 계획으로, 전략적으로 국내 차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.
- 이번 조치는 국제 차입에서 점차 벗어나 국내 차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반영하며, 이는 외부 자금 조달의 제한과 글로벌 금융 압력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무디스(Moody's)는 케냐가 이미 정부 수입의 3분의 1을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, 국내 부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부채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 부문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함.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케냐 정부는 올해 상환 예정액 KES 4,950억 및 내년 만기 예정인 KES 8,220억을 포함한 채권 상환 부담 관리를 위해, 채권 재매입(bond buybacks)과 장기 만기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○ 단기 차입 확대로 부채 구조 악화...국내 이자지급액 KES 981억 증가³⁾

- 2025년 6월 30일 종료된 회계연도 기준, 케냐의 국내부채 이자지급액은 전년 KES 5,342억에서 KES 6,323억으로 KES 981억 증가하였으며, 이는 국내 차입 확대와 금리 상승에 기인함.
- 현재 국내부채가 케냐 전체 공공부채(약 KES 11.7조)의 54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국내 차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7%(약 KES 9,200억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증가한 이자 부담은 여러 개발 지출을 초과하였으며, 국내 이자 지급액은 교육 부문 전체 예산에 근접한 수준으로, 개발 프로젝트 지출액을 상회하였음.
- 관계자들은 국채권(Treasury Bills) 등 단기부채 상품 비중 확대가 고금리 환경에서 차환 리스크를 증가시켜, 개발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.

○ 케냐, 세계은행 프레임워크 기반 KES 650억 규모 지속가능 채권

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interest-paid-on-domestic-up-sh98-1bn-on-higher-borrowing-5184358>

발행 계획 - 녹색 인프라 자금 조달 목적⁴⁾

- 케냐는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KES 650억(약 5억 달러) 규모의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.
- 해당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후 회복력, 청정 에너지, 수자원 보존 및 기타 녹색 인프라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.
- 정부는 세계은행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여 투자자 신뢰와 신용도를 구축하고, 국내외 시장에서 해당 지속가능 채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했음.
- 이번 조치는 케냐가 재원 조달원을 다각화하고, 공공 재정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며, 녹색/ESG 준수 금융상품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함.

○ 높은 차입 비용으로 케냐의 부채 부담 악화⁵⁾

- 케냐의 국내외 차입금에 대한 높은 금리로 인해 채무 상환 비용이 급증하였으며, 국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.
-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국내 차입 비용이 상승했고,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외화 차입 비용도 증가하였음.
- 높은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개발 재원이 제한되어, 보건·교육·인프라 등 주요 부문에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음.
- 경제학자들은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음.

○ 감사관, 루토 정부 공공부채 KES 3.3조 불법 차입 의혹 제기 - 법적 감독 필요성 강조⁶⁾

- 공인 부정 조사관이자 장기 근무 감사관인 버나드 무체레(Bernard

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banks-on-wb-framework-for-sh65bn-sustainability-bond-5192944>

5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9549/how-high-borrowing-costs-compound-kenyas-debt-challenges>

6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29645/the-sh33-trillion-illegal-debt-in-rutos-regime>

Muchere)는 루토 정부가 집권 3년 동안 약 KES 3.3조 규모의 “불법 부채”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. 이는 법률 또는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차입을 의미함.

- 무체례는 이러한 차입이 실제 시행된 개발 사업과 부합하지 않으며, 차입액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.
- 그는 다수의 부채가 적법한 승인(예: 국회의 사전 동의) 없이 이루어졌으며, 일부 자금은 법에서 규정한 개발 지출이 아닌 경상 지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.
- 해당 보고서는 현 정권이 「공공재정관리법(Public Finance Management Act)」 및 「세출법(Appropriation Acts)」 등 공공재정 및 부채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, 이에 따라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민간 통제·감독 취약: 수십억 수익 디지털 플랫폼의 국가 투명성 외 운영 우려⁷⁾

-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루토 대통령의 핵심 디지털 공공 시스템(eCitizen, 사회보건청(SHA)/사회보건보험기금(SHIF), 정부 Paybill 계정 등)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, 이들 기업이 통제권, 지식재산권(IP), 수익 배분권을 보유함으로써 투명성과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- 해당 기업은 국가 계정에 입금되기 전에 수수료로 차감하거나 계약 구조상 일부를 보유할 수 있어, 국가의 감독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됨.
- 일부 시스템의 조달 과정은 경쟁 입찰을 우회한 ‘특별 허가 조달(specially permitted procurement)’을 활용했으며,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 해결이 케냐 법원이 아닌 해외 중재로 이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시민사회, 야당 지도자, 감독 기관들은 투명성 확보, 감사, 법적 대응

7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the-men-controlling-public-systems-with-billions-5193134#story>

등 강력한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, 이러한 구조가 공공 재원 고갈, 신뢰 훼손, 공익 달성 저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음.

- **감사, 케냐 전역에서 KES 13억 규모 유령·저품질 CDF 사업 적발⁸⁾**
 - 감사원(Nancy Gathungu)의 최근 감사 결과, 케냐 전역의 지역개발기금(NG-CDF) 인프라 사업 중 KES 13억 규모가 중단되었거나, 부실 시공되었거나,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음.
 - 이 중 KES 4억9,500만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사업에 해당하며, 건설 및 유지 관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.
 -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에는 완공 후 방치된 사업, 완공되었으나 부실 시공으로 훼손된 사업 등이 포함되며, 이는 CDF 지출의 품질, 감독,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.
 - 이번 감사는 공공재원집행의 가치 대비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, 많은 지역구가 개발을 위해 배정된 공공 자금을 실행 또는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.

2 PPP 관련 동향

- **케냐 주지사들, 아프리카 무역포럼에서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 글로벌 투자자들과 협력 모색⁹⁾**
 - 케냐의 주지사들은 아프리카 지방정부 네트워크(African Sub-Sovereign Governments Network, AfSNET) 포럼과 아프리카 역내 무역 박람회(Intra-African Trade Fair)를 통해, 국가 정부 경로를 거치지 않고 국제 금융기관에 직접 “지역 메가 프로젝트(regional mega-projects)”를 제안하였음.
 - 분고마(Bungoma) 주지사 케네스 루사카(Kenneth Lusaka)는 호수 지역 경제권의 전략을 강조하며, 서부 케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 공동 활용, 인프라 및 산업화, 지방분권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음.
 - 타이타 타베타(Taita Taveta) 주지사 앤드루 음와디메(Andrew

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9-16-audit-flags-sh13bn-shoddy-work-ghost-projects-in-constituencies>

9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8781/kenyan-governors-pitch-regional-mega-projects-at-african-trade-forum>

Mwadime)는 해안 지역의 투자 기회를 강조하며, 가축 도축장 현대화, 마카다미아(macadamia) 농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.

- 두 주지사는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(AfCFTA) 체제 하에서의 계획 역량 강화, 행정 자동화, 항공 자유화, 인적자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대외원조 의존도 감소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함.

○ 우간다, 말라바-캄팔라 표준궤도(SGR) 30억 달러 프로젝트에서 40% 현지 계약 예약 - 역량·지급 우려 존재¹⁰⁾

- 우간다 현지 공급업체들은 총 3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‘말라바-캄팔라 표준궤철도(Standard Gauge Railway, SGR)’ 사업에서 약 40% 참여를 요구하며, 약 5억 달러 규모의 계약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2024년 10월 우간다 정부와 터키 업체 야피 메르케지(Yapi Merkezi)간 체결된 계약에는 시공, 자재 공급, 서비스, 기술 이전, 고용 등 분야를 규정하는 현지 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.
- 총 연장 272km, 설계속도 시속 120km, 주요·중간 역, 마샬링 야드(marshalling yard), 화물 터미널을 포함하는 이 철도는 연간 2,500만 톤 화물 운송 능력을 목표로 하며, 역내 연결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음.
- 현지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산업 역량 구축 기회로 보고 있으나, 국내 기업이 합작법인 없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와 지급 지연, 집행 미비 문제 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음.

○ 나이지리아, 110억 달러 규모 라고스-칼라바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착수 - 비용·철거·투명성 논란 대두¹¹⁾

- 나이지리아 정부는 총연장 약 700km, 6차선 규모로 라고스에서 칼라바르까지 9개 해안 주를 연결하는 ‘라고스-칼라바르 해안고속도로(Lagos-Calabar Coastal Highway)’ 건설을 본격 착수하였으며, 총 사업비는 약 15조 나이라(NGN) (약 110억 달러)로 추산됨.

10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locals-eye-40pc-deals-in-3bn-malaba-kampala-railway-project-5182940>

11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nigeria-s-11bn-coastal-highway-project-stirs-uproar-5187768>

- 1단계 구간(47.47km)은 도이치은행(Deutsche Bank) 등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7억 4,700만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(syndicated loan)로 조달되었으며, 하이텍 건설(Hitech Construction Company)이 주요 시공사로 참여함.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·상업시설 철거 및 이에 따른 보상 분쟁, 환경 영향 우려, 투명성 부족, km당 비용, 특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특혜·연고주의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.
- 정부는 고속도로가 교통, 무역, 관광을 촉진하고 이동 시간을 수시간 단축하며, 지역 연결성 및 경제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함. 프로젝트에는 태양광 가로등, 병행 철도, 보행자 도로, 방파제 등 부대 시설이 포함됨.

○ 중국, 케냐 북부 교통회랑 장악 심화 - 주권 및 입찰 조건 우려 제기¹²⁾

- 중국은 Rironi-Mau Summit 도로 개보수 등 주요 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케냐 북부 교통회랑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. 중국도로교량공사(CRBC) 및 기타 중국 기업들이 케냐 도로청(KenHA)이 검토 중인 제안서에 따라 시공을 주도할 위치에 있음.
- 케냐는 동일 도로의 프랑스 컨소시엄(Rift Valley Highway)과 체결한 계약을 높은 통행료 및 불리한 조건 문제로 해지하고, 해지 수수료를 지불함. 이로써 중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열림.
- 고속도로, 표준궤 철도(Standard Gauge Railway) 및 제안된 도로 개량 사업 등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운영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케냐의 주권 및 자국 물류 회랑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- 비평가들은 케냐가 일부 인프라 개량을 국내 자금으로 수행하거나 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으며,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, 공공 참여 확대, 공정한 계약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.

12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financial-standard/article/2001529510/why-kenya-has-surrendered-key-transport-corridor-to-china#google_vignette

- 케냐, Rironi-Mau Summit 도로 개량 사업을 중국에 맡긴 배경¹³⁾
 - 케냐는 Rironi-Mau Summit 도로 개량 사업을 중국도로교량공사(CRBC)에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케냐 항만과 내륙국가를 연결하는 북부 교통회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.
 -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PPP(공공-민관협력) 모델로 프랑스 컨소시엄과 계약되었으나, 높은 통행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됨으로 중국 및 기타 입찰자의 참여 여지가 발생함.
 - CRBC는 이미 표준궤도 철도(Standard Gauge Railway, SGR)와 나이로비 익스프레스웨이(Nairobi Expressway)를 운영 중이며, 경쟁사인 산둥 고속도로교량(Shandong Hi Speed Road & Bridge)과 멀티플렉스 파트너스(Multiplex Partners)보다 선호되고 있음. 그러나 높은 통행료와 중국의 전략적 인프라 장악 확대에 대한 공공 우려가 존재함.
 - 전문가들은 케냐가 국내 자금으로 보다 더 저렴하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으며, 외부 자금 조달 모델이 과연 필요한지,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음.

- 나이지리아, 해안-고속도로 연결 강화 위해 아프리카 최초의 해저터널 공개¹⁴⁾
 -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라고스의 아마두 벨로 웨이(Ahmadu Bello Way)와 스네이크 아일랜드(Snake Island)를 연결하고 바다그리(Badagry)까지 연장되는 아프리카 최초의 해저터널 계획을 발표했다.
 - 터널 길이는 2.9~3.5km에 달하며, 라고스-칼라바르(Lagos-Calabar) 고속도로와 소코토-바다그리(Sokoto-Badagry)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61km 구간의 일부로 설계됨.
 - 해당 프로젝트는 PPP(민관협력) 방식으로 추진되며, 스네이크 아일랜드와 바다그리 주변 토지 자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.
 - 현재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있으며, 라고스 교량의 혼잡을 완화하고

13) <https://constructionreviewonline.com/news/reasons-why-kenyas-government-has-surrendered-rironi-mau-summit-road-upgrade-to-china/>

14) <https://constructionreviewonline.com/news/nigerias-federal-government-unleashes-plan-for-africa-first-underwater-tunnel-connecting-lagos-calabar-highway-to-sokoto-badagry-highway/>

나이지리아의 해안 및 내륙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케냐, 아다니 그룹 계약 무산 후 JKIA 개편 위해 16억 3천만 달러 개발 자금 모색¹⁵⁾

- 케냐 정부는 법적·평판적 우려로 아다니 그룹(Adani Group)과의 공항 확장 계약을 취소한 후,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(JKIA) 개편을 위해 국제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총 16억 3,000만 달러 (약 KES 2,060억)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음.
- 확장 계획에는 제2 활주로와 신규 터미널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, 민간 운영자가 참여하는 건설-운영-양도(BOT)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전환하고, 추후 위탁운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전환됨.
- 정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, 중국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, 독일 KfW은행, 유럽투자은행(EIB)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등 개발 금융기관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, 이는 정부가 소유 및 운영권을 유지하면서 다자개발금융(MDB) 기반 자금조달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반영함.
- 이는 케냐가 불투명한 민관협력(PPP) 계약을 지양하고 국가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동시에, 역내 항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나타냄.

○ 케냐 도로청(KeNHA), 급등하는 건설 비용 대응 위해 계약 가격 조정 공식 개편¹⁶⁾

- 케냐 도로청(KeNHA,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)은 기존 계약 가격 조정 방식이 급격히 상승하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공업체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우려에 따라, 계약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개편하고 있음.

15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8782/inside-rutos-new-sh206-jkia-upgrade-plan-after-adani-deal-flop#google_vignette

1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construction/runaway-costs-trigger-shake-up-of-kenha-contract-price-formula-5185074>

- 개편된 조정 공식에는 연료, 시멘트, 철강, 인건비 등 주요 항목의 시장 변동성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 물가지수 및 가중치 체계가 포함됨.
- 이번 조치는 시공사의 신뢰 회복 및 입찰제도의 공정성 제고,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감소, 변동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목표로 함.
- 최종 규정 변경안은 수주일 내에 케냐 도로청(KeNHA)에서 공표될 예정이며, 향후 가격 조정이 산정·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게 됨.

○ 시아야 카운티, KES 20억 투자해 최첨단 의뢰 병원 및 2만 석 규모 경기장 건설 추진¹⁷⁾

- 케냐 시아야 카운티(Siaya County)는 총 KES 20억 규모를 투입해 500병상 규모의 5단계(Level-5) 의뢰 병원(Referral Hospital)과 2만 석 규모의 자라모기 오깅가 오딩가 스타디움(Jaramogi Oginga Odinga Stadium) 건설이라는 두 개의 핵심 사업을 착수함.
- 본 사업은 국가정부 및 카운티정부가 공동 재원으로 추진하며, 케냐 국방군(KDF, Kenya Defence Forces)이 건설을 관리하여 안전 확보 및 적기 준공을 도모함.
- 의료시설에는 응급·중양·투석·신생아 치료 등 고급 진료 서비스와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여,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.
- 경기장은 시아야 자치구 내 4.5헥타르 부지에 건설되며, 지붕이 설치된 관람석, VIP 구역, 최신 조명시설, FIFA 표준 설비를 갖추어 주요 스포츠 및 행사 허브로 활용될 예정임.

○ 케냐, 에티오피아 그랜드 르네상스댐(GERD) 전력수입 확대 추진 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안정화 목표¹⁸⁾

17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yanza/article/2001528922/siaya-county-bets-sh2-billion-on-hospital-and-stadium>

18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9/kenya-to-buy-power-from-ethiopia-after-grand-dam-launch-ruto/>

- 윌리엄 루토(Wiliam Ruto) 대통령은 총사업비 약 50억 달러 규모의 에티오피아 그랜드 르네상스 댐(GERD) 준공에 따라, 케냐가 에티오피아와 신규 전력구매계약(PPA)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표함.
- 케냐는 이미 1,045km 송전망을 통해 에티오피아로부터 200MW의 수력을 수입하고 있으며, 향후 추가 수입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 제고 및 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함.
- 루토 대통령은 추가 전력 도입이 케냐의 경제 전환 가속화,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,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.
- GERD는 범아프리카적 성과로 평가받는 반면, 나일강 수량 감소를 우려하는 이집트 측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.

○ 우간다, 농업·교통 인프라 사업 위해 4억 달러 차관 추진 – 국가 채무 급증 우려 속 결정¹⁹⁾

- 우간다 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국제농업개발기금(IFAD), 이슬람개발은행(IsDB), 유니크레딧 오스트리아은행(UniCredit Bank Austria)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억 달러를 차입하여 농업·교통·보건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- 이 중 2억 5,300만 달러는 AfDB에서 조달되며, 우간다와 르완다, 부룬디, 콩고민주공화국(DRC)을 연결하는 톨로드(toll road) 사업 완공에 사용될 예정임.
- 야당 측은 공공부채가 2024년 기준 29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차입 계획을 비판했으며, 중앙은행 또한 과중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고한 바 있음.
- 정부는 이번 차입이 인프라 확충 및 성장 촉진형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함.

○ 중국 기업, 나이로비 도로·하수·교량·조명 현대화 사업 KES 376억 계약 체결²⁰⁾

- 중국에너지공정그룹(China Energy Engineering Group)이 나이로비

19)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africa/uganda-borrow-400-mln-agriculture-transport-projects-finance-ministry-says-2025-09-04/>

20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chinese-firm-get-sh37-6bn-deal-for-city-sewer-roads-5193040>

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KES 376억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음. 해당 사업은 하수도, 도로, 교량, 배수, 가로등 설치 및 비(非)모터화 접근도로가 포함함.

- 프로젝트에는 27개 교량의 재건축 및 신설을 포함하며, 배수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 내 침수와 물 고임 문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비(非)모터화 접근도로 건설도 포함되어 있어, 교통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임.
- 가로등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 인프라 현대화와 함께 치안 개선 및 야간 활용성 제고가 기대됨.

○ **코카콜라, 케냐 수자원 안보 강화 위해 KES 2억1320만 규모 유역 복원 투자²¹⁾**

- 코카콜라는 아프리카 수자원 관리 이니셔티브(Africa Water Stewardship Initiative)를 통해 나이로비 및 주변 지역의 핵심 유역인 어퍼 타나(Upper-Tana) 및 미드 갈라나(Mid-Galana) 유역 복원에 165만 달러(약 KES 2억 1,320만)를 투자하고 있음.
- 프로젝트는 수자원 공급 회복, 하안 지역 복원, 자생 수목 식재, 빗물 활용 촉진 등을 통해 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, 농장 저수지, 과수원 조성 등을 통해 식량 안보와 주민 생계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임.
- 이번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총 2,5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며, The Nature Conservancy,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, WWF 등과 협력해 시행됨.

○ **KETRACO, 손두(Sondu) 송전 용량 확대 위해 은행 및 연금 기금에서 KES 1,110억 조달 계획²²⁾**

- 케냐 전력 송전공사(KETRACO)는 132kV 손두 변전소 및 관련 송전 인프라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과 연금기금으로부터 KES 1,110억을 조달하려 하고 있음.

21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9/kenya-to-get-sh213-2mn-for-water-systems-restoration/>

2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traco-eyes-sh111bn-from-banks-pension-funds-5194314>

- 이번 조치는 외부 공여자나 정부 자금 의존도를 낮추고, 국내 자본을 활용하여 송전망 확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임.
- KETRACO는 금융기관 및 연금기금의 참여 확보 등 국내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.
- 송전망 확장은 전력 공급 신뢰성 개선 및 손두 변전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향후 연결될 지역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임.

○ 케냐, 에너지·보건·농업에서 핵 기술 확대...2034년 첫 원자력 발전소 전력망 연결 목표²³⁾

- 케냐는 비전 2030(Vision 2030)과 상향식 경제 전환 전략(Bottom-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)에 따른 장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, 2027년까지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고 2034년까지 전력망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정부는 핵기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요청서(RFI)를 발행했으며, 국제원자력기구(IAEA)와 협력하여 Milestones Approach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.
- 에너지 분야를 넘어 케냐는 공공 보건 분야에서도 핵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, IAEA 지원으로 나쿠루(Nakuru)와 몸바사(Mombasa)에 두 개의 암센터가 설립되어 지난 1년간 5,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음.
- 농업 분야에서는 IAEA의 Atoms4Food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수확량 증대, 비료 비용 절감, 기후 회복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.

○ 케냐, 몸바사 항구 확장 위해 KES 410억 배정 - 무역 및 화물 처리 능력 강화²⁴⁾

- 케냐 정부는 2025년 예상 화물량 240만 컨테이너를 수용하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몸바사(Mombasa) 항구 확장에 KES 410억을 배정함.
- 확장 계획에는 기존 키페부(Kipevu) 유류 터미널 철거 및 터미널 19

23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9-16-kenya-unveils-nuclear-energy-agenda-at-iaea-conference-targets-2034-grid-connection>

24) <https://eastleighvoice.co.ke/national/212483/kenya-sets-aside-sh41-billion-to-expand-mombasa-port-handle-24-million-containers>

조성을 위한 토지 매립이 포함되며, 이를 통해 45만 TEU 이상의 처리 능력이 추가될 예정임.

- 케냐 항만청(KPA)은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 운영자와 협력하여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맞춰 시설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.
- 정부는 아프렉심은행(Afreximbank)과 협력하여 항구 주변의 동고쿤두(Dongo Kundu) 특별경제구역 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, 이는 비전 2030(Vision 2030) 4차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산업화와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함.

④ 정치 동향

○ 케냐 법원, 전자조달시스템(e-GPS) 의무 시행 중단 — 조달개혁 갈등 속 제동²⁵⁾

- 케냐 고등법원(High Court)은 케냐 전자정부 조달시스템(e-GPS)의 의무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, 공공기관이 입찰 서류를 전자 방식 또는 수기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- 바하티 음와무예(Bahati Mwamuye) 판사는 재무부 및 공공조달규제청(PPRA)의 지시를 중단하는 보전 명령을 발령하며, 두 방식 모두 「공공조달·자산처분법」(Public Procurement and Disposal Act) 제77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함.
- 이번 중단 조치는 법원이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2025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함.
- 이번 판결은 루토(Ruto) 대통령, 재무부 장관 존 음바디(John Mbadi), 카운티 관리들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으며, 루토 대통령은 일부 공무원들이 조달 개혁을 저지하고 e-GPS 시스템을 폄하하려 한다고 비판함.

○ 루토 대통령, 2027년 선거 대비 이미지 쇄신 위해 2년 개발 캠페인 착수²⁶⁾

- 윌리엄 루토(W. Ruto) 대통령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 신뢰 회복과 정치적 모멘텀 확보를 위해 2년간의 집중 개발 캠페인을 착

25) 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9/high-court-halts-compulsory-use-of-e-govt-procurement-system/#google_vignette

26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president-ruto-s-two-year-race-to-turn-the-tide-ahead-of-2027-5187120#story>

수하였으며, 교육·보건·농업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함.

- 행정부는 각 부문 개혁 및 개발사업 추진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, 비판 측에서는 이를 피상적이거나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함.
- 이번 캠페인은 경제난·사회 불안·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민 여론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 행보로 분석됨.
- 청년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불만에 대응하고, 실질적 개발 성과를 부각시켜 정치적 내러티브를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○ 루토 대통령 핵심 프로젝트, 3년 간 부패 의혹·정책 모호성·공공 불신 논란²⁷⁾

- 루토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난 현재, 주요 정책(저렴주택사업, 사회보장청/SHIF, 공항 확장 사업 등)이 부패 의혹, 불투명한 조달, 비용 초과, 정책 일관성 결여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.
- JKIA(조모 케냐타 국제공항) 확장, KETRACO 송전선 PPP 등 일부 대형 사업은 공공 여론, 법적 검토, 조달 방식 문제 등이 공개되면서 취소되거나 수정됨.
- 정책의 불명확성과 잦은 변경, 규제 감독 미흡, 정부 기관 간 상이한 신호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.
- 시민사회, 야당, 언론 등 이해관계자들은 약속과 실제 성과 간 괴리를 지적하며, 대형 사업 수행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판함.

○ 은딘디 뇨로, 나이로비-나쿠루 고속도로통행료 부과 반대 - 정부 재원 활용 확장 촉구²⁸⁾

- 키하루(Kiharu) 국회의원 은딘디 뇨로(Ndindi Nyoro)는 Rironi-Mau Summit 2차선 도로 확장을 포함한 나이로비-나쿠루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, 이는 케냐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운송비를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음.
- 그는 도로 이용자들이 이미 연료세, 부가가치세(VAT), 근로소득세

27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9-15-three-years-later-rutos-key-projects-face-hurdles>

2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9-15-why-ndindi-nyoro-opposes-tolling-of-nairobi-nakuru-highway>

(PAYE) 등 여러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, 통행료 부과는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음.

- 니요로는 통행료 대신 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하며, 국영기업 지분 매각, 기존 자산 활용, 연료세·기타 세금 등 이미 징수된 자금 사용 등을 통해 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.
- 통행료 부과는 지역 간 무역을 저해할 수 있으며,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입업자나 운송업체가 인접국의 낮은 통행료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.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Kulamawe-Modogashe Road & Garbatulla Spur²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도로·교통부 산하 케냐 국도청(KeNHA);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아프리카의 뿔 게이트웨이/Isiolo-Modogashe-Wajir-Elwak 회랑 사업 구성 요소
- (도 급 사) 다수 토목공사 시공사(구간별 계약). Lot 2(Kulamawe-Modogashe 및 Garbatulla 지선)는 KeNHA 조달을 통해 입찰 진행, 계약 체결 및 시공사 명단은 KeNHA 조달 기록에 공개(구간·트랜치별 시공사 상이)
- (사 업 비) 세계은행 신용 및 공동 재원으로 추진되는 다구간 회랑 사업의 일부로, 전체 회랑 (Elwak-Modogashe/Isiolo-Mandera 프로그램)의 총사업비는 약 KES 800~850억으로 보고됨. Lot별 계약금액은 입찰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, Lot 2 금액은 프로젝트 재원에 포함됨.
- (편 당) 다자간 재원 조달(World Bank 차관 P161305 - 아프리카의 뿔 게이트웨이 개발사업)과 아프리카·아랍 파트너 재원, 케냐 정부 공동재원으로 조달; 시공사 지급은 직접 지급 방식 사용
- (사업내용)
 - 범위: Kulamawe-Modogashe 본선(포장 방식에 따라 약 113~118km)과 Garbatulla 지선 및 추가 지선 연결 포함(총 Lot 2 회랑 약 128km). 공사 내용에는 포장 재건/아스팔트 포장, 제방 공사, 배수 시설, 소·중형 교량, 도로 시설물 및 안전 장치 설치가 포함.
 - 부대 공사: Kulamawe-Modogashe-Samatar 구간에 광케이블 설치 관련 토목 공사 (디지털 연결 구성요소 포함).
 - 사업 구분: 사업을 Lot별로 구분(Lot 1: Isiolo-Kulamawe, Lot 2: Kulamawe-Modogashe & Garbatulla 지선)하여, 병행 공사 가속화 및 재원 집행 방식에 맞춤.
- (추진현황)
 - 설계 및 환경·사회 보호조치: KeNHA는 Isiolo-Kulamawe-Modogashe 회랑Lot 2에 대한 이주대책계획(RAP)과 환경·사회영향평가(ESIA)를 공개, 토지 취득·보상·이해관계자 참여 포함
 - 2024년~2025년 중반: Isiolo-Kulamawe(77km)와 Kulamawe-Modogashe(약 113~118km) 구간 도로 공사 진행, 시공사 캠프 설치 및 토목공사 수행
 - 2025년 가속화: KeNHA의 2025년 5월 Elwak-Modogashe(749km) 회랑 확대 및 북부 도로 신속 추진으로 Lot 2 구간 시공사 재동원·자금 집행 재개, 연료세 유동화 등 국가 조치로 체납 구간 재동원 지원

29) <https://kenha.co.ke/wp-content/uploads/2024/07/Final-Isiolo-Kulamawe-Modogashe-Road-RAP.pdf>

- 도전 과제: 토지 보상 지연, 높은 시행 위험, 지역사회 불만 등 발생, RAP 지급 및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으로 완화

○ (주요상황)

- RAP 및 ESIA 공개(2024): KeNHA는 Isiolo-Kulamawe-Modogashe 회랑의 최종 RAP 및 ESIA 문서를 게시, 본격 공사 전 보상 및 보호 조치 준수 확보
- 공사 진행 확인(2024~2025): 세계은행 감독보고서에 따르면, Kulamawe - Modogashe 구간 시공사 캠프 설치 완료, 공사 진행 중; 사업 시행 평가는 '보통 이상' 수준이나 위험도 상승
- Lot 입찰 및 조달(2020~2022): KeNHA는 Lot 2(Kulamawe-Modogashe + Garbatulla 지선)를 조달 공고, 재원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직접지급 방식 적용
- 광역 회랑 사업 연계(2025): 국가 차원의 740~749km 북부 회랑 (Isiolo-Mandera/Elwak) 국가 사업에서 다수 시공사 배정, Lot 2 구간은 회랑 단위 조정 및 재원 우선 배정 혜택 확보

② Lamu-Ijara-Garissa (A10) Road & Associated Spur³⁰⁾

< 사업 개요 >

- **(발 주 처)** 도로교통부 산하 케냐 고속도로청(KeNHA),
LAPSSET/Lamu-Garissa-Isiolo 회랑(LAPSSET) 광역 사업의 일환
- **(도 급 사)** 사업은 구간별 계약으로 조달, 초기 조달 공고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Lamu-Garissa 구간 일부를 중국 시공사가 수주(KeNHA 입찰 및 Lot 구분 적용). 구간별 시공사 명단은 KeNHA 조달 기록과 기존 언론 발표에서 확인 가능
- **(사 업 비)** Lamu-Garissa 구간은 수십억 실링 규모로 보고, KeNHA는 주요 공사에 약 179억 KES를 배정. 전체 Lamu-Garissa-Isiolo 패키지는 다구간 회랑 사업에 포함되며, Lot별 금액은 구간별로 상이
- **(편 당)** 케냐 정부(KeNHA) 예산 배정과 LAPSSET 프레임워크 하
공동재원·기부자·파트너 지원으로 조달. 자원 조달 방식에는 KeNHA 자본,
예산 배정, 회랑 자원 패키지 활용 포함. 일부 구간은 지역·대륙 프로젝트
목록에 따라 파트너 재원으로 패키징
- **(사업내용)**
 - 사업 개요: Lamu-Garissa 구간은 약 250~263km(Lamu → Ijara → Garissa)로 보고되며, 전체 Lamu-Garissa-Isiolo 회랑의 첫 구간으로 자주 언급. 전체 LAPSSET 도로망은 여러 연결 구간으로 구성
 - 사업 내용: 아스팔트 포장 표준으로 도로 개량, 제방, 배수로 및 소/중형 교량, 도로 시설물 및 안전 장치, 필요 시 입체 교차, 접근 도로 및 도시 지선 연결(예: Garbatulla/Garbatula 지선 포함).
 - 전략적 목적: Lamu를 지역 무역 관문(LAPSSET)으로 개방, 해안·북부 주 접근성 향상, 소말리아·남수단·에티오피아 회랑과의 연계 강화, 소외 지역 경제발전 지원
- **(추진현황)**
 - 설계 및 조달(2020~2022): 사업을 Lot별로 구분, KeNHA가 Lamu-Garissa 주요 구간 입찰 공고 및 예산 배정, 2021~2022년 조달 활동 보고
 - 공사 및 시공사 동원(2023~2025): 여러 구간에 시공사 동원, LAPSSET/KeNHA 보고서 기준 A10 구간 약 48.44% 진행(mid-2025), 2025년 초 대통령 현장 점검으로 공사 진행 및 정부 우선순위 확인
 - 완공 예상 vs 실제: 일부 언론(2024)에서는 단기 완공을 예측(예: 2025년 2월까지 완공)했으나, 조달, 토지 보상 및 단계적 공사로 인해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됨. 일부 하위 구간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 상태이며, 다른 구간은 여전히 보상 및 정리가 필요함.

30) <https://kenha.co.ke/wp-content/uploads/2023/10/Directorate-of-Development-Ongoing-Projects.pdf>

○ (주요상황)

- 주요 진행 상황: 공식 LAPSSET/KeNHA 업데이트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패키지 약 절반 진행, 회량은 단계별 진행 중이며 최종 연결은 미지급 토지 보상 정리 및 공사 완료 여부에 달림
- 재원 및 조달: KeNHA는 상당한 예산 배정(예: KES 179억 배정)과 Lot별 공사 패키징으로 효율적 추진, PIDA/LAPSSET 등 기부자·지역 목록이 전략적 사업 성격 지원
- 커뮤니티 지원 활동: 시공사들이 공사 동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일환으로 지역 자산 복구 등 지원 활동 수행, 토목공사 진행 원활화
- 잠재적 병목: 토지 소유권 분쟁, 보상 지연, 외곽 구간 물류·환경 제약이 주요 위험, 도로세 유동화 등 국가 조치로 체납 구간 재동원 지원

③ 132 kV Sondu Substation & Sondu-Homa Bay-Awendo Transmission Line³¹⁾

< 사업 개요 >

- **(발 주 처)** 에너지부 산하 케냐전력송전회사(KETRACO), 송전망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Sondu-Miriu 수력발전 포함 발전 설비 전력 송출 및 서부·남부 Nyanza 지역 전력 공급 강화
- **(도 급 사)** EPC 공사는 과거 다수 Lot별로 패키지 조달, KETRACO가 입찰 및 구간별 계약 체결. Lot별 시공사 명단은 시기별·구간별 상이하며, Sondu-Homa Bay 구간 관련 과거 계약에서 시공사 명단 확인 가능
- **(사 업 비)** 본 사업은 KETRACO의 South-Rift/South-Nyanza 송전망 투자 사업의 일부로 보고. Lot별 계약금액과 송전선·변전소 총사업비는 입찰·계약 공고에 공개(각 Lot 수백억 KES 수준). Sondu 변전소 + 102km 송전선 총비용은 KETRACO 조달문서 및 보고서에 명시, 단일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음
- **(편 당)** 케냐 정부/KETRACO 예산과 개발 파트너 지원(JICA는 과거 Sondu-Miriu 구간 지원), KETRACO는 국내 금융 및 PPP·자문 방식 활용. Lot별 재원은 KETRACO/KeNHA 배정 및 파트너 보조금·대출에 따라 조달
- **(사업내용)**
 - 변전소 범위(손두): 132 kV double bus 및 bus coupler, 132/33 kV 23 MVA 변압기 1대, 33 kV single bus 및 33 kV feeder 4개, 제어 건물, 관련 보호 장치 및 SCADA 통합.
 - 송전선 범위: 약 102km 132 kV 단회로 송전선 Sondu → Ndhiwa(Homa Bay) → Awendo, 관련 타워 기초, 도체, 접지, 통행권 및 ROW 복구 포함; Ndhiwa 변전소 설치 및 Awendo 배이 확장 포함.
 - 목적/효과: Sondu-Miriu 수력 및 지역 발전 전력 송출, Kisumu/Homa Bay/Migori/Awendo 부하 중심의 신뢰성 향상, 지역 정전 감소, 지역 산업 및 가정 전력화 지원.
- **(추진현황)**
 - 설계 및 조달: 2016~2023년 Sondu-Homa Bay 송전선 및 변전소 공사에 대해 KETRACO가 다수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, 일부 Lot FEED 및 상세 설계 완료
 - 착공 및 시공사 동원: 2016년 Sondu-Homa Bay 구간 착공 등 과거 착공 기록, 시공사 캠프 설치 및 공사 진행 프로젝트 업데이트에 확인
 - 부분 상전 및 관련 공사(2024~2025): 2025년 보고서 기준 인근 132 kV 구간(Awendo-Isebania) 상전 및 남부 Nyanza 시운전 진행, Sondu 구간 다수 Lot 공사가 후반 건설·시운전 단계
 - 현 시점(2025) 집중 사항: KETRACO가 테스트, 통로 확보, 변전소 설치 및 보호/SCADA 완공 작업 진행, Sondu-Kisumu 송전선 구간 보수 공사 입찰 시행

31) <https://www.ketraco.co.ke/transmission/projects/ongoing/sondu-homabay-awendo?>

○ (주요상황)

- 지역 전력 신뢰도 향상: 공사 완료 시 서부 케냐 송전망이 강화되어 Sondu-Miriu 발전 전력이 안정적 공급 기반이 되고 지역 정전 감소
- 단계적 상전 진행: 2025년 Awendo-Isebania 132 kV 동서 연결 상전 완료, 광역 사업 진행 및 통합 문제 완화 기여
- 조달 및 패키지 리스크: 다수 Lot로 연차별 추진, 위험 분산 효과 있으나 통로 확보, 시공사 동원, 클레임, 구간별 완공 등 조정 과제 발생. KETRACO가 단계별 계약 및 보수 입찰로 관리
- 재원 조달 방식 변화: KETRACO 및 정부가 국내 금융 및 PPP 활용 확대 계획, 잔여 공사 일정과 자본 비용에 영향 가능성

④ Vipingo Special Economic Zone (SEZ)³²⁾

< 사업 개요 >

- **(발 주 처)** Arise Integrated Industrial Platforms(Arise IIP)와 Centum Investment Company 공동, 케냐 정부 전략 지원·촉진(대통령에 의해 지정된 특구(SEZ)로 출범)
- **(도 급 사)** 단일 EPC 시공사는 아직 미공개, 사업주는 Arise IIP/Centum이 담당하고 Lot별로 다수 전문 시공사 배정 예정. 구체적인 토목/EPC 시공사 명단은 단계별 진행 시 발표 예정
- **(사 업 비)** 주요 개발 목표: 2,000에이커 규모 특구(SEZ) 총 개발 목표 약 KES 3,900억(약 30억 달러), 초기 정부/언론 자료에는 초기 공사·산업단지 구성 요소 약 KES 160억 포함
- **(편 당)** 혼합 방식 조달, 개발사 지분(Arise IIP/Centum), 상업은행 및 기관투자자 금융. KCB 그룹과 아프렉심은행이 각각 USD 3억, USD 5억(총 USD 8억·약 KES 1,034억) 초기 투자 약정, 추가 자본은 민간 투자자, 입주사 투자 및 수출금융 시설을 통해 조달 예정
- **(사업내용)**
 - 사업 개요: 약 2,000에이커 규모, Kilifi 카운티 Vipingo에 위치, 몸바사 항구 및 나이로비-몸바사 교통 회랑 인근 10,000에이커 규모 Vipingo 마스터플랜 내 수출지향형 SEZ로 지정됨.
 - 핵심 산업·시설: 섬유/의류 제조(대표 섬유공장), 농산물 가공, 경공업, 물류·창고, 수출 서비스 제공, 현장 유틸리티(안정적 전력·수자원·폐수처리, 내부 도로/철도 연계)
 - 고용 목표: 직간접 총 3~5만 명 직접 고용, 수만~수십만 명 간접 고용 효과 전망
 - 전략적 위치: 몸바사 항과 근접, 케냐 SEZ 정책(10년 세제 보장/인센티브)과 연계, AfCFTA 지역시장 활용 계획
- **(추진현황)**
 - 2025년 9월 16일 기공식 및 공식 출범, 대통령 Ruto 주재 정부사업주 발표에서 SEZ를 주요 산업화 사업으로 강조
 - 즉각적 자원 약정(2025년 9월 중순): KCB 그룹과 Afreximbank가 SEZ 운영 및 투자자 금융 지원을 위해 총 8억 달러(약 KES 1,034억) 규모의 금융 패키지 발표, Afreximbank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융은 케냐 국가 프로그램(Kenya Country Programme) 하에 제공됨.
 - 개발사 파트너십: 글로벌 SEZ 개발사 Arise IIP와 케냐 투자 그룹 Centum이 개발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, ARISE 및 투자자 포럼에서 마스터플랜 목표를 발표함.
 - 초기 투자자/주요 사업 발표: 언론과 개발사 브리핑에서 주요 섬유공장 및 기타 제조업 핵심 사업 설립 계획 언급, 입주 기업 계약 및 EPC 계약은 단계별 진행에 따라 발표될 예정.

32) <https://investmentpromotion.go.ke/president-ruto-breaks-ground-2000-acre-vipingo-sez-day-2-arise-iip-forum-charts-kenyas-industrial>

○ (주요상황)

- 사업 효과: SEZ가 완공될 경우 케냐 연안 경공업 및 수출 기반 확대, 대규모 고용 창출, 가치사슬 연계 촉진 가능
- 재원 안정성: KCB·아프렉심은행 초기 1,034억 KES 약정으로 단기 재원 위험 완화, 투자자 신뢰 신호. 다만 전체 완공 위해 추가 자본, 입주사 선임대, 수출금융 필요
- 주요 리스크: 토지 사용·통로 확보 명확성, 전력·수자원 등 유틸리티 제공, 핵심 입주사 유치,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; 세제 보장 등 인센티브 적시 제공과 승인 절차 간소화 중요
- 거버넌스 및 지역 연계: 성공 위해 킬리피 지역 사회 참여, 지역 참여 정책, 국가 기관(KenInvest, KENTRADE), 주정부, 개발사 간 조정 필요